

# 日蓮의 국가사상이 초국가주의에 미친 영향

백 승 현\*

(e-mail: paik-jp@hanmail.net)

---

## 目次

---

### I. 서론

1. 문제 제기
2. 이론적 배경과 선행 연구
3. 연구 방법

### II. 日蓮의 국가사상—『立正安国論』

### III. 日蓮의 국가관의 야누스적 성격과 그 정치문화적 작용

### IV. 결론

---

## I. 서론

### 1. 문제 제기

明治 이후 일본불교 각 교단은 침략정책에 편승, 그 정책 수행과정에 있어서 적지 않은 역할을 하였던 것이다. 1876년 조선의 개항 이래 1905년 이전까지 일본의 불교도들은 한반도에 침투하여 장차 식민지 개척에 유리한 환경을 조성해갔다.<sup>1)</sup> 일본은 부산, 원산, 인천 등의 개항장내 일본 거류민에게 불교를 포교한다는 구실 아래 일련종(日蓮宗), 정토진종(淨土眞宗), 진언종(眞言宗), 조동종(曹洞宗) 등은 각 종파의 승려를 보내어 일본 사찰을 세우고 한국인을 그 신도로 포섭하는데 열을 올렸다. 그들은 그 당시 조선에서 전도활동이라기 보다는 자국의 침략 내지는 식민정책 그 자체를 수행하고 있었다는 사

---

\* 大東文化大学 정치학박사, 현재 전남대학교대학원 디아스포라학협동과정 박사과정

1) 정광호(2001) 『일본침략시기의 한·일 불교 관계사』 아름다운 세상, p.77

실이다.<sup>2)</sup>

청일전쟁이 나자 일본불교 각 종파는 현지침공에 적극적인 협력체제를 펴며 전쟁터로 중군승을 파견하여 군대포교, 전사자 추조(追弔), 군인위문 등을 하도록 했고, 혹은 일본 내 병원의 위문, 간호용품 기증, 또는 출정 군인가족의 위문이나 빈곤가족 구제 등을 하였다.<sup>3)</sup> 일본 각 종단들은 전쟁을 지지하는 사람들을 동원하기 위해 종단이 후원하는 신문, 잡지 그리고 포교자료를 활용했다.<sup>4)</sup>

러일전쟁에서는 일본 불교교단의 전쟁협력은 한층 적극화되었다. 각 교단은 모두 자체 내의 末寺에 군사원호(援護)가 잘 진행되도록 ‘지시’를 내렸다. 전쟁을 정당화하는 대부분의 불교나 神道뿐만 아니라, 기독교단까지 전쟁을 미화하고 정당화했다.<sup>5)</sup>

러일전쟁 이후 일본의 대륙팽창이 본격화되자 특히 日蓮宗은 거기에 편승, 침략적 의식을 생산하고 나아가 그것을 선도하는 역할을 수행하였다. 가장 강하게 국권주의적 성격을 띤 日蓮系 종단은 한국·중국·만주에서 침략의 선봉으로서 적극적으로 침병 혹은 하청 역할을 수행하였다.

원래 카마쿠라(鎌倉)막부시대(1185-1333) 니치렌(日蓮)은 국가권력의 방종을 규탄하고, 한편으로 서민대중이 경전의 제목(題目)만 부르면 성불할 수 있다며 민중불교를 개창했다. 鎌倉仏教 성립 자체가 종래의 왕권수호의 국가불교나 귀족불교에 반발, 일본불교사상 유례없는 역동성을 보인 종교개혁의 일단(一端)으로 평가되고 있다. 그렇게 출발한 종교교단이 근대 이후 일본국가주의의 격류에 휩쓸려 혹은 앞서서 주도적으로 침략시대를 선도해 갔다는 사실은 이해하기 힘들다. 그것은 日蓮의 불교사상 자체에 근본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문제의식에 착안, 본 논문을 집필하게 되었다.

## 2. 이론적 배경과 선행 연구

鎌倉新仏教는 국가의 安泰나 권력자의 平安을 기원하는 것을 그 사명으로 하였던 종래의 일본불교와 달리, 민중의 고통구제를 목적으로 출현하였다.

淨土宗의 개창자 호오넨(法然, 1133-1212)은 아미타불(阿彌陀仏)이 일체 중생을 구원하기 위해 선택한 48가지 本願 중에서 가장 중요한 18願(稱名念仏), 즉 ‘南無阿彌陀仏’이라고 아미타불의 名호를 부르지만 하면, 사후 극락정토에 往生할 수가 있다고 설파했다. 왕생정토를 밝혀주는 구체적 가르침인 『

2) 위의 책, p.101

3) 栢原祐泉 / 원영상 外 訳(2009) 『日本仏教史 近代』 동국대출판부, p.200

4) 브라이언 다이젠 빅토리아 / 정혁현 訳(2009) 『전쟁과 禪』 인간사랑, pp.172-173

5) 위의 책, pp.201-202

無量壽經』에 보면 아미타여래는 법장(法藏)비구였을 때, 48가지의 서원(誓願)을 세웠는데, 전념하는 자가 있으면 모두 극락왕생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서원을 세운 내용이 있다. 이러한 교학에 착안한 호오넨(法然)은 세간의 모든 인간이 쉽게 실천할 수 있는 수행은 바로 아미타여래의 본원(本願)<sup>6)</sup>을 믿고 염불하는 것이며, 이것만이 탁세의 모든 인간이 평등하게 구제되는 방법이라고 가르쳤다.

호오넨(法然)이 저술한 『選擇本願念仏集』에서 “아미타의 본원인 무한한 자비에 의해 모든 중생의 빈부귀천과 지혜의 고저를 불문, 어떠한 중생도 차례대로 왕생을 가능케 한다”고 선포함으로써 일본불교의 모습을 근본적으로 바꾸어 놓았다. 즉 종래의 귀족이나 승려만이 가능한 면학이나 儀式을 탈피, 호오넨(法然)이 설파한 간단한 염불만으로 구원된다는 확신 때문에 도시하층민과 농민이 불교의 수용자가 되었다.<sup>7)</sup>

法然의 淨土宗은 무엇보다 민중을 의식한 종교이다. 그것은 在家불교를 표방하기조차 하지 않는가. 어떠한 민중에게도 구원의 약속이 있음을 설하고 있는 것은 淨土門의 가르침이 아니었던가.<sup>8)</sup>

法然의 제자 신란(親鸞, 1173-1261)은 스승의 가르침을 더욱 발전시켜, 아미타여래에 의한 구원을 믿기만 하면 사후 구원된다고 하여 많은 신자를 모았다. 신란(親鸞)은 關東의 농촌에 들어가 농촌에 사는 하급무사나 농민과 접촉하고 호오넨(法然)보다도 더 깊게 대중과 결합됨으로써 淨土敎의 敎義를 한층 더 심화시켰다.

신란(親鸞)에게는 法然의 염불조차 하나의 수행이었다. 親鸞이 이해하는 구원이란 궁극적으로 수행의 문제가 아니라 자력을 포기하고 오직 아미타불의 본원에 의지하는 신앙의 문제였다.<sup>9)</sup> 親鸞이 설파한 아미타불의 본원을 믿는 확고한 신앙에 근거한 삶에 대한 자신감에서 농민들을 중심으로 신앙적 공동체가 형성되기까지 하였다.

한편 니치렌(日蓮, 1222-1282)은, 정토교란 현실문제를 외면하고 사후 ‘정토’만을 동경하는 현실도피 종교이므로, 그는 현실을 변혁할 수 있는 새로운 敎義체계가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니치렌(日蓮)은 『법화경』 경전에 귀의한다는 말, 즉 ‘난묘호오렌케쿄(南無妙法蓮華經)’로 立敎開宗을 선언했다. 그는 절

6) 원래 과거의 소원라든가, 이전의 열망으로 번역되는 말. 누구라도 부처를 지향하는 뜻이 있다면, 반드시 세우지 않으면 안 되는 大願望을 말한다. 여기서는 아미타여래가 세운 願을 말한다.

7) 田村圓澄(1964) 『日本仏敎思想史 <淨土敎篇>』 平樂寺書店, p.44, p.47

8) 柳宗悅(1996) 『南無阿彌陀仏』 岩波書店, pp.41-42

9) 김희성(1999) 『일본의 정토사상』 민음사, p.100

대 진리인 『법화경』 신앙에 의해 새로운 국가가 출현하며, 그 국가는 고뇌하는 민중이 구제되는 지상의 낙원인 ‘불국토’라는 宗旨를 이론화하였다. 최고 경전인 『법화경』에는 경전신앙만으로 불교의 이상인 ‘即身成佛’이 되고, 이 세상이 ‘불국토’가 된다고 설해져 있다는 사실을 日蓮은 강조했다.<sup>10)</sup>

이와 같이 鎌倉新仏敎의 등장으로 종래의 귀족이나 승려에게만 가능한 복잡한 敎學이나 고행이 생략되고, 염불이나 창제(唱題)와 같은 易行만으로 충분하다고 說法했기 때문에 불교가 민중의 것이 되었다.<sup>11)</sup>

막스 베버는 ‘신분차별’을 부정한 원시불교조차도 특권계급의 산물로 파악했다. 그의 저서 『힌두교와 仏敎』에서 불교가 敎說한 대상은 높은 지식층이나 불교의 敎義 그 자체가 비교적 윤택한 지방에서 형성되었으며, 당초에 병사나 노예, 범죄자들은 교단에 가입할 수가 없었다고 지적했다.

일본에서 奈良·平安시대 불교는 황실의 불교 혹은 국가 중심의 불교였으며, 차츰 후지와라(藤原)시대에 들어서도 귀족불교로서 기능하였다.

따라서 정치사상가 마루야마 마사오(丸山眞男, 1914-1996)는 鎌倉仏敎를 일본불교의 전형(典型)으로 들고 있으며, 親鸞·道元·日蓮이 선도한 鎌倉仏敎를 전체적으로 종교개혁<sup>12)</sup>의 일단으로 평가한 것도 무리가 아니다. 특히 마루야마 마사오(丸山眞男)는 鎌倉시대 日蓮이 일본불교사 최초로 국가로부터 자립을 관철시킨 敎義와 실천을 결합시켰던 사례를 지목, 일본의 대표적 종교가로 日蓮을 들고 있다.

반권력적 성향이 있는 日蓮의 종교가 기존의 질서와 권력에 대한 대항이념인 것으로 간주되는 起因이 있는 것은 사실이다. 따라서 地上의 세속권위의 상대화를 전면에 내세운 차원에서 日蓮을 조명하는 연구와 신앙이 행해졌다.

타카야마 쇼규(高山樗牛, 1871-1902)는 日蓮의 국가이념을 국가권위를 초월한 성스런 종교이념으로써 다시 파악하고, 양심적 日蓮 연구의 기초를 만들었다.

타카야마 쇼규(高山樗牛)는 만년 1902년 4월, 「日蓮と基督」이란 논문을 저술, 그 논문에서 日蓮의 “王地에서 태어난 몸이라면 따라 섬길 수밖에 없지만, 마음까지 따라 섬길 수가 없다”(『選時抄』)는 말과 성서의 “케사르의 것은 케사르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마태복음」)라는 말을 거론하였다. 결국 日蓮의 말도 성서의 말도 모두 왕국의 권위를 넘은 성스런 종교세계의 권위를 강조한 것으로, 거기에서 그는 새로운 日蓮像을 발견해냈던 것이다.<sup>13)</sup>

10) 久保田正文(1967) 『日蓮』 講談社, pp.81-82

11) 大橋俊雄(1978) 『法然と浄土宗教団』 教育社, p.16

12) 中島誠(1999) 『丸山眞男と日本の宗教』 第三文明社, pp.24-25 재인용

13) 橋河文三(1978) 「高山樗牛」 『日本の思想家 <中>』 朝日新聞社, PP.78-83 참조, 朝日

기독교 사상이 우치무라 칸쵸(内村鑑三, 1861-1930)도 타카야마(高山樗牛)와 같이 日蓮의 국가사상이 집약된 『立正安国論』에 함축된 권력과 종교와의 관계에 주목, 『立正安国論』을 국가권력의 ‘상대화’의 시도로써 파악했다. 국가주의적 日蓮主義<sup>14)</sup>가 만연했던 최성기에 우치무라 칸쵸(内村鑑三)가 성서의 사상을 빌어서 日蓮이 의도했던 ‘권력의 상대성’, 또 ‘국가에 대한 종교의 초월성’을 간파·언급했던 것은, 日蓮 연구로서는 특필할만한 것이라 하겠다.

나카무라 하지메(中村元)는 종교개혁론으로 鎌倉불교를 평가하고 있다. “일본불교에 있어서도 기독교에 있어서와 같이 鎌倉시대 하나의 민중종교가 출현했다. 또 루터나 칼빈이 유럽에서 행한 것처럼, 호오넨(法然)과 신란(親鸞)이 기성교단의 폐풍(弊風)에서 과감히 이탈하였다. 동서양을 불문하고 그 중심이 된 원리는 勉学이나 儀式에 의해서가 아니라, 신앙에 의해서만이 구제된다고 하는 교설이었다”<sup>15)</sup>고 평가하였다.

그러나 쿠로다 토시오(黒田俊雄)는 ‘鎌倉신불교’를 증세불교의 주류로 보는 종래의 관점을 뒤집는 ‘현밀(顯密<sup>16)</sup>) 体制論’(黒田俊雄<1975> 『日本中世の国家と宗教』, 岩波書店)을 내놓았다. 쿠로다 토시오(黒田俊雄)는 ‘신불교’를 당시 불교계에서는 작은 세력을 가진 ‘이단파’에 지나지 않고, 주류는 증세적으로 재편된 대사원 중심의 현밀불교라고 하여 鎌倉仏教觀을 一變시켰다. 그리고 개창자에 있어서는 이단파였던 新仏教徒였던 것이, 이윽고 계승자에 있어서는 다시 현밀불교화한다고 파악했던 것이다.

와타나베 쇼오코(渡辺照宏)는 日蓮이 『법화경』 신앙과 일본민족 샤머니즘의 진기(神祇: 하늘의 신과 땅의 신)를 결부시켜서 국가주의적 정치활동을 의도하는 것이므로, 도무지 불교의 본류와는 무관한 것이라는 사실조차 깨닫지 못했다고 혹평했다.<sup>17)</sup>

종교적, 철학적으로 親鸞을 예찬하는 京都学派의 철학자 우메하라 타케시(梅原猛)의 『美と宗教の発見』이 있다. 우메하라 타케시(梅原猛)는 日蓮에 대해서 “『법화경』 신앙만을 고수한 나머지 불교를 너무 좁게 해석하고 있다. 결

ジャーナル 編集

14) 日蓮主義는 그 원류(源流)에 있어서 국가주의적 사상과 結合·合体되어 있었으며, 적어도 「日蓮主義」라는 표현이 등장하기 위해서는, 사회사상으로서의 국가주의를 강고하게 내포하는 데서부터 생겨났다. 日蓮主義는 田中智学에 의해 제창되어 本田日生の 활동과 대응하면서, 일본 근대사에 다방면적인 영향을 미쳐갔다.(丸山照雄<1975. 11> 「近代日蓮主義と超国家主義」 『伝統と現代 特集=宗教とは何か』 伝統と現代社, pp.106-108 참조)

15) 中村元(1988) 『日本思想史』 東方出版, p.181

16) 顯密이란 顯敎와 密敎이다. 언어문자 상으로 명확히 실해진 석가의 가르침을 현교, 최고 심원의 경지에 이른 자 이외에 알 길이 없는 가르침이 밀교이다.

17) 渡辺照宏 / 김진만 訳(1995) 『日本の 仏敎』 한림신서, p.58

국 ‘자비의 가르침이 없는 배타성’”이라고 단언. 그는 저서의 말미에 “日蓮의 가르침이 너무나도 좁은 배타적 선악주의로 떨어져 버렸다”고 지적하고 있다.

2005년 日蓮宗系의 승려 마쓰오카(松岡幹夫)는 東京大学院 종합문화연구과 국제사회과학 전공의 연구논문 『日蓮仏教の社会思想的展開』를 책으로 발간하였다. 이 저서에서는 근대에 있어서 日蓮系의 사상운동으로써 다채로운 日蓮敎義의 사회사상적 전개에 대해 종합적이고 다각적인 관점에서 조명하였다. 마쓰오카(松岡幹夫)는 근대 日蓮主義者들(田中智学·北一輝·石原莞爾 등)의 사상적 종교적 오류를 지적한 점은 평가할만하지만, 그가 과거 日蓮系 종단(創価学会 포함)이 군국주의 발호시기에 식민지 지배에 협력했던 前科에 대해 묵인하고 있음은 아쉽다.

2006년 서양인으로 일본 曹洞宗의 禪僧인 브라이언 다이젠 빅토리아가 쓴 『戦争と禪』이 2009년 한국에서 번역 출간되었다. 그는 일본의 禪宗을 비롯한 제도불교가 국가 및 천황제와 유착하여 침략전쟁 수행에 협력했던 단말마적 행태를 많은 자료들을 바탕으로 폭로하고 있다. 日蓮宗은 물론 불교 각 종단이 만주사변에서 태평양전쟁에 이르기까지의 15년 전쟁을 성전으로 찬양하고 고무했던 사실들을 낱알이 들춰내 주었다. 宗祖 日蓮이 석가와 천황이 하나 됨을 언급했던 사실과 일본파시즘의 광풍이 휩쓸고 있을 때, 日蓮系 宗團연합의 지도자들이 국가정책의 장엄한 정수인 양 ‘皇国の 길 불교’운동을 주도했다고 지적했다.

戰後, 日蓮의 국가사상에 관해서는, 국가주의적 日蓮像에 처음으로 역사학적인 시점에서 과학적 연구의 메스를 가한 것은 양심적 역사학자 이에나가 사부로(家永三郎)였다. 이에나가 사부로(家永三郎)는 그의 논문(<1960> 「日蓮の宗教の成立に関する思想史的考察」)에서, 日蓮의 소위 鎮護国家적 성격이 奈良시대나 平安 초기에 왕성히 강조되었던 그것과 전혀 변하지 않았음을 지적하였다. 日蓮宗을 소위 신불교로서만 이해하는 데에 커다란 장애를 초래한다고 지적, 戰前 일본국가주의자에 의해 주목되고 높이 평가되어온 그 국가주의적 성격을, 역으로, 日蓮 이전의 구불교=호국불교로부터의 영향을 전부 불식시키지 못한 채 성립한 ‘구불교적 요소’라고 규정하였다.

이에나가(家永三郎) 이후의 연구는, 日蓮의 국가불교적 성격이라는 문제의식을 계속 갖고서 日蓮을 연구한 토코로 시게모토(戸頃重基)는 日蓮의 立正安国 사상이 ‘구불교’에 연원(淵源)하고 있다는 점은 일단 인정했다. 그런데 그는 구불교가 「王法偽本」(불교를 국가권력에 종속시켜 그 번영에 봉사하는 것으로 시킨다)의 입장을 취하는 것에 대해, 「立正」을 「安国」의 불가결한 전제로 하는 「仏法偽本」(국가를 초월하여 正法을 우위에 두는 것)의 입장에 ‘신불교’로서 日蓮의 특색이 있다고 정의하였다.

### 3. 연구 방법

본 논문에서는 국가주의자 日蓮의 국가사상을 재검토할 필요성과 함께, 日蓮宗教의 교의 究明을 목적으로 한다. 하지만 종교학자 토코로 시게모토(戸頃重基)는 石原莞爾의 구상과 日蓮主義와의 관련을 언급하며, “그에게서 보이는 침략주의 사상은 明治 이래의 군의 전통과 국주회형(国柱会型)의 日蓮主義를 포함하는 것이며, 日蓮主義적 원점에서 유래하는 것은 아니다”고 주장하고 있다.<sup>18)</sup>

또 日蓮宗系 승려 마쓰오카(松岡幹夫)가 『日蓮仏教の社会思想的展開』에서 근대 日蓮主義의 논리는 일본이 군국주의나 파시즘의 노선을 확장하는 데에 하나의 커다란 지주가 되었으며, 이는 정치문화에 작용하여 큰 흐름을 형성하였다. 그것은 근대 우익적 日蓮主義者들(田中智学, 北一輝, 石原莞爾 등)의 사상적 오류로만 단정하는 것에 日蓮 연구가 머물고 있다.

한국에서는 원영상이 日蓮敎학에 비추어 田中智学의 군국주의 논리를 비판한 논문<sup>19)</sup>을 완성한 바 있다. 하지만 본 논문의 연구방법으로서는, 明治 이후 日蓮의 교의가 일본 대외팽창의 이데올로기적 역할을 맡았던 점에 착안, 근대 일본의 국가주의적 日蓮主義者들의 사상경향을 검토함과 동시에 日蓮의 국가사상과 敎理 자체를 검토·규명하여 宗祖 日蓮의 實像에 접근하는 방법을 택하고자 한다.

## II. 日蓮의 국가사상—『立正安国論』

日蓮의 주저 『立正安国論』의 근본 사상은 국가 국토의 평온은 올바른 사상과 정신을 支柱로 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 논서 집필의 근본 동기는 기아나 병, 그리고 미증유의 역병에 시달리고 있는 사람들에게 대한 현실적 해결책과 구원이었다.<sup>20)</sup> 立正安国이란 正法을 건립함으로써 이 국토를 평온하게 하는 것이며, 이것을 題名으로 한 것은 立正安国이야말로 종교의 목적이어서, 사후의 정토왕생만을 목적으로 하는 淨土敎와 같이 이 현실을 초월한 내세의 淨土가 아니다.<sup>21)</sup> ‘立正’이란 仏法이고, ‘安国’이란 王法이다. 결국 立正安国論이란 국가와 불법의 관계를 규정한 ‘王仏冥合’<sup>22)</sup>을 지향하게 된다. 또 국가는 ‘民’을

18) 松岡幹夫(2005) 『日蓮仏教の社会思想的展開』 東京大出版会, p.18 재인용

19) 원영상(2008) 「일련주의의 불법호국론과 국체론」 『근대 동아시아의 불교학』 동국대출판부

20) 渡辺宝陽(1982. 4) 「立正安国論」 『現代思想 特集=日蓮』 青土社, p.61

21) 金岡秀友(1985) 『日蓮』 集英社, p.192

근본으로 삼아야 한다는 사상이 『立正安國論』의 요지여서, 결코 협소한 국가주의를 주창하는 논서가 아니다<sup>23)</sup>고 하겠다.

日蓮은 일본 天台敎學 가운데 횡행해 가고 있던 정토교와의 타협에 반발, 정토교와 대항할 수 있는 말법시대의 구원책으로써 새로운 법화신앙을 수립하려는 결의를 다졌다.<sup>24)</sup>

그러나 日蓮의 이미지는 ‘일본적 불교’여서 민족주의 종교로서의 이해가 확립돼 있다. 그것은 『立正安國論』에 나와 있는 국가중심적인 문장 때문이기도 하다. 실제로 日蓮은 일본국이 본래 우수성을 가진 국가로 실체적으로 인식하고 있으며, 일본민족 토착신으로 민족성을 상징하는 神祇를 적극적으로 위치시키고 있다.

나아가 日蓮은 일본이란 현실 국토 그 자체를 신성시하며, 현실 국토지상주의적인 敎義를 전개하고 있는 것이다. “위대한 야마토(大和)는 神의 국가이다. 이 국가만이 태양의 女神에 의해 그녀의 자손들에 전해져 왔던 것이다.”<sup>25)</sup> 그는 이러한 견해를 채용하여 ‘神祇’ ‘神國’이라는 상징적인 말을 마구 사용하고 있다. 소위 “일본은 神國이다. 세계에서 진귀한 本尊<sup>26)</sup>이 일본에만 존재한다고 할 것 같으면, 일본국은 문자 그대로 ‘神國’으로서 仏國에 해당된다는 것은 틀림없고, 일본은 불교의 문맥상 세계에서 으뜸가는 뛰어난 국토·국가라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兵衛志殿御返事』)는 등의 일본우월주의 혹은 國家至上主義적인 말을 구사하고 있다.

日蓮의 말에 이 仏國土라는 것은 어떠한 것인가라는 개념을 보이고 있다. 불국토란 7개의 재난에서 괴로움을 받고 있지 않는, 善神에게 守護되고 있는 국토이다. 즉 諸天善神과 일본 고유의 민족신이 일본을 보호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즉 “첫째는 천황가 조상인 天照大神, 둘째는 야하타신(八幡大菩薩)<sup>27)</sup>, 셋째는 산신령(山王) 등의 3천여 神社의 신들이 주야로 일본국을 수호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神國王御書』).”

이와 같이 주술적 요소나 神佛習合의 요소를 내포하고 있는 점에서 鎌倉仏

22) 왕불명합은 세속법과 불법의 일치 즉 祭政一致를 말하는 것으로, 전 세계인들이 『법화경』에 귀의하여 불국토를 건설해야 한다는 日蓮의 宗旨로 볼 수 있는 말이다.

23) 末木文美士(2000) 『日蓮入門』 筑摩書店, P.86

24) 村上重良(1981) 『日本の宗教』 岩波書店, p.99

25) 일본국토를 신성시하며 나아가 일본국의 우월성을 호소하는 사상은 일본 민족의 바이블 『日本書紀』에 유래하는 ‘神國思想’이다.

26) ‘本尊’이란 근본으로서 존경하는 것이라는 의미로, 어느 종교에 있어서도 신앙의 근본 의지할 곳으로서 가장 중요한 것이라는 용어이다.

27) 문제는 야하타신(八幡神)은 神道에서 말하는 전쟁의 신이라는 사실이다. 八幡는 고대로부터 무사의 신앙이었다. 八幡神과 天照大神이 日蓮宗이 말하는 漫荼羅에 함께 적혀 本尊으로 받들고 있다.



教 중에서 가장 전통과의 연속성이 두드러진다. 또 『법화경』을 모든 경전의 상위에 두며 절대귀의를 표명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日蓮이 또한 일본의 신들에 대하여 두터운 신앙심을 표시하고 있다. 日蓮의 보편주의는 親鸞이나 道元과 비교하면, 논리적 철저성을 결하고 있는 점에서 오히려 전통적인 鎮護國家論보다 더욱 日本至上主義적인 측면을 갖고 있다.<sup>28)</sup>

더군다나 법화신앙과 민족고유의 샤머니즘의 神祇를 결부시켜서, 政敎一致를 지향하는 즉 ‘王仏冥合’의 佛法을 역설, 그 결과 ‘立正安國’이란 국가불교를 창도하였다.<sup>29)</sup>

日蓮이 문제로 삼은 것은 일본의 문제였다. 그는 『법화경』의 「藥草喩品」에 “法王은 세간에 출현한다”는 문구에 대하여 “세간이란 일본국이다”라고 풀이하고, 또 「神力品」에 나오는 “이 사람, 세간에서 살아갈 때”란 문구에 대하여는 이 사람이란 上行보살을 뜻한다. 세간이란 대일본국, ... 오늘날 日蓮들의 무리가 곧 이것이다”하였다. 또 妙樂대사의 “아들이 아버지의 법을 펼치는 데 세계의 이익이 있다”는 글을 해석하여 “아들이란 지용(地涌)의 보살이다. 아버지란 석존이다. 세계란 일본국, 이익이란 성불이다”라고 풀이했다. 인도불교도의 견해에 따르면, ‘세계(lokadhatu)’란 것은 해·달이 비추는 범위, 곧 수미산을 중심으로 한 4대주를 가리키는 호칭인데, 日蓮은 『법화경』에 의하여 구체되는 미래의 ‘세계’는 단지 일본국이라고 먼저 한정하여 생각한 것이다.<sup>30)</sup>

결국 明治 국권팽창주의 시대 日蓮主義者들이 빈번히 인용한 日蓮의 말에, “우리 일본국은 一閻浮提(인간세계) 가운데, 인도 중국보다 뛰어나고, 세계만방에도 월등해 있는 국가인 것이다”<sup>31)</sup>라는 말이 있다. 이 문장만을 놓고 보면 자못 세계재패를 노리는 제국주의자처럼 보인다. 明治 20년대 국권주의가 힘을 더해가는 가운데 그 풍조에 편승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日蓮에 정착된 이러한 이미지를 증폭시켜, ‘日蓮像’을 선양해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立正安國論』에는 국가권력에 대한 저항적 근거가 마련되어 있다는 사실이다. 『立正安國論』의 일본역사상 의미의 하나는 ‘권력의 상대화’의 시도이고, 다른 하나는 ‘국가의 상대화’의 촉진이었다는 명백한 사실이다. 그것은 日蓮이 속권·정권에 대해서 매우 격한 저항을 보인 것에 잘 나타난다. 이러한 저항은 일본에 있어서 종교와 국가와의 관계 혹은 종교와 권력과의 관계에 있어서 획기적이지 상징적인 사건이었다. 이러한 日蓮의 『立正安國論』의 역사적 의의를 명확히 하기 위해서는 종교와 권력의 관계에 대해서

28) 앞의 책(丸山真男『丸山真男講義録 [第四冊]』), p.269

29) 東京大学教仏教青年会 編(1947) 『國家と仏教』 日本青年教育会出版部, pp.86-87

30) 中村元 / 金知見 訳(1982) 『日本人の思惟方法』 김영사, p.114.

31) 茂田井教亨(1982. 4) 『日蓮の國家觀』 『現代思想 特集=日蓮』 青土社, p.65 재인용

말해줄 필요가 있다. 그것은 불교와 나란히 세계종교, 특히 유대교나 그리스도교와의 비교에 있어서 日蓮宗의 독자성이 해명되어 있다.

그리스도교는 유일신 혹은 절대적 진리를, 현세, 즉 인간의 현실세계를 초월한 절대적 권위로서 전제하고, 그것을 현세의 가치판단의 기준으로 잡고 있다. 따라서 그리스도교도 주어진 국가를 상대화하여 보는 것이 가능하게 되었다. 日蓮은 일본역사상 처음으로 『법화경』이라는 진리를 주장하여 그러한 관점에서 현실의 국가와 정치를 상대화하였다는 점은 앞서 우치무라 칸쥬(内村鑑三)가 잘 평가하였다.

특히 日蓮은 『법화경』의 독자적 해석을 시도하고, 『법화경』 行者라는 주체적 의식으로 시대숙명의 종말적 말법관을 극복하려고 했다. 日蓮의 큰 특징은, 당시의 시대정신과도 같은 ‘無常觀’과 ‘폐시미즘’, 몽고來襲 전야의 불안한 상황에서 독자적인 『법화경』 해석으로 ‘末法觀’을 극복한 이념적 견인력이 되었음은 부정할 수 없다. 日蓮은 天台宗 출신 승려임에도 불구하고, 천태지의(天台智顓, 538-597)나 사이쵸(最澄=일본天台宗의 開祖, 767-597)와 같은 자신 내면의 어두운 부분을 응시하는 태도를 취하지 않았다.<sup>32)</sup>

문제는, 日蓮의 信条에는 말법의 시대를 초극하는 이념적 견인력이 되고 있지만, 지나친 낙관주의와 과잉 자의식이 전면에 부각돼 있다. 가령, 인도·중국 불교는 전부 타락해서 말법시대 불교포교를 오직 日蓮만이 할 수 있다거나, 자신이 『법화경』의 流布를 떠맡은 설화적 존재인 ‘上行보살’을 자처하고 있다. 日蓮은 말법의 시대에 태어나, 『법화경』의 구제력을 인류에게 敎示했기 때문에 日蓮이 바로 本仏이 아니면 안 된다는 자의식이 바로 그것이다. 대부분의 日蓮宗에서는 석가모니불을 진정한 영원한 불타라고 간주하고 있지만, 日蓮正宗에서는 日蓮이 바로 「末法시대의 本仏(眞の仏)」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日蓮正宗에서는 말법시대에 출현하여, 인류를 成仏과 구제에로 이끄는 本仏을 日蓮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日蓮 자신이 말법시대에 『법화경』을 전 세계에 流布하는 지용(地湧)보살의 출현으로 보는 자의식이 있다.<sup>33)</sup> 地湧보살은 『법화경』(제15장 「從地湧出品」)에 보이는 보살들이다. 地湧보살은 여기서 과거 석존의 진리를 밝히는 일에 앞서 그 진리를 受持하는 주체로서 지금까지 석존을 따른 보살들을 물리치고, 새로운 땅에서 솟아난(湧出) 보살들을 선택하게 된다. 그것이 ‘上行보살’을 지도자로 만드는 地湧보살이다. 日蓮과 ‘湧出보살’의 관계는 어떠한가. 日蓮은, 자주 석존이 열반에 든 후, 말법시대에 탄생하여 『법화경』의 廣宣流布

32) 梅原猛(1988) 『地獄の思想』 中央公論社, pp.62-64

33) 일본 창가학회가 거행하는 신자교육 지침서(1996. 5) 『大白蓮華』, p.76

를 떠맡은 ‘湧出보살’의 지도자인 ‘上行보살’의 化身이라고 생각했다.<sup>34)</sup>

바로 日蓮에 의한 『법화경』 유포에 의한 ‘세계통일의 중심국가 일본’이라는 안전인수의 信条가 근대 이후 전쟁을 통한 영토팽창과 침략지배의 첨병역할에 疾走하게 하였던 것은 아닐까.

근대 日蓮宗團의 특징은 그것이 적극적으로 침략이데올로기의 일익을 담당, 침략과 식민지 지배의 선봉에 섰던 데에 있다. 明治 이후 『立正安國論』은 일본에서 국가론의 효시로서 日蓮이 주장하는 국가주의는 각광을 받게 되었다. 日蓮宗은 일본이 전체주의 국가에로 질주해 가고 있던 1920~30년대에 걸쳐 일본파시즘<sup>35)</sup>의 사상체계 안에서 간과할 수 없는 지위를 차지했다. 그의 국가사상은 대외팽창주의와 결부되어, 국가개조를 목표로 한 일부 정치가·군인들에게 ‘국가주의자=日蓮’像이 급조되어 그들의 마음을 사로잡은 사상적 원형이 되었다.

日蓮이 올바른 신앙에 의한 민중구제를 주장한 점에 있어서 유럽의 종교개혁과 상통하는 측면이 있지만, 법화신앙에 의한 국가의 安泰를 기할 수 있다는 『立正安國論』 주장 자체가 현세 ‘부정’·‘거부’가 아니라 ‘긍정’이 되고 만다는 사실이다. ‘仏法僞本’이라며 세속적 가치와 질서를 부정하고 나선 종교가 그렇게도 단호하고 분명하게 국가의 안전과 이익을 약속하는 종교, 즉 사회적, 문화적 종교로 변질되었음은 이러한 起因이 있기 때문이다.

法然의 염불뿐만 아니라, 日蓮의 격언 중에 밀교인 眞言宗을 ‘亡國’으로까지 매도했음에도, 그의 생전 시부터 지금까지 밀교적 주술의 발상으로 『법화경』의 제목을 현세이익의 祈禱를 위해서 행해왔다. 그것은 王法守護의 일관된 정치적 지향과 상호작용하여 이 종파에 두드러지게 현세주의적 성격을 가져다주었다.<sup>36)</sup> 이른바 日蓮이 품고 있던 국가 사회에 대한 예리한 비판적 태도나 안목은 근대에 이르러 살려지지 않고, 오히려 日蓮宗은 현세이익 추구에 매몰되어 갔던 것이다. 그 결과, 쿄오토(京都)의 도시민이나 무역상인들 가운데 많은 신자를 획득해 갔다.

현실국가의 상대화를 시도하고, 사회적 구제를 唱導한 日蓮의 국가사상은 봉건국가의 틀을 벗어나지 못했다는 한계성이 있다.

말하자면, 神道流의 일본 고유의 國體論을 액면 그대로 받아들여, 일본을 독자성을 갖는 국가로서 전 세계를 통일, 지배할 유일한 국가로 보며, 日蓮을 천

34) 管野博史(2001) 『法華經入門』 岩波書店, pp.108-110

35) 파시즘 운동은, 세계자본주의 체제 위기상황의 진행에 대한 반혁명 운동으로서, 1920~30년대에 걸쳐 전 세계적인 규모로 발생하였다. 일본의 파시즘화는 제1차대전 후의 역사과정에 있어서 직면한 일본제국주의의, 내외에 걸쳐 위기상황에의 대응책으로서, 만주사변 이후 급속히 발전하였다.

36) 앞의 책(丸山真男『丸山真男講義録 [第四冊]』), p.271

황과 동일시하여 그가 日蓮主義를 전파할 사명을 갖는 것으로 확신하였다. 다른 어떤 종파보다도 천황주의에 적극 호소하거나 傾倒되어 군국주의를 지지하였고, 물론 이를 자발적으로 先導해 나갔다.<sup>37)</sup>

### Ⅲ. 日蓮의 국가관의 야누스적 성격과 그 정치문화적 작용

『立正安国論』은 근대에 이르러 日蓮숭배자들에 의해 국가주의를 지향하는 이론적 텍스트로 해석되었다.<sup>38)</sup>

타나카 치가쿠(田中智学) 등 근대 日蓮主義의 본류는, 일본의 절대주의적 황국사상이 확립해가는 과정에 있어서, 그것을 때로는 先導하는 형태로 국가주의적 경향을 강화시켜갔다. 그들이 말하는 日蓮主義라는 것은 그 신앙에 있어서 최고의 가치를 ‘천황제국가’의 ‘国体’에 두고 있었다.<sup>39)</sup> 다른 어느 종파보다도 천황제 군국주의를 전면에 내세우는 데 강력한 支柱가 되었다. 민중성으로부터 이탈한 근대 日蓮宗은 일본 파시즘 진영 안에서 많은 신자·동조자를 확보했다.

이러한 日蓮宗團의 논리는 근대 일본이 군국주의나 ‘범일본주의적 국가주의’가 전개되는 데에 하나의 커다란 축을 형성하였으며, 이를 지지하는 사회·문화적 방면에서도 큰 흐름을 형성하였다. 日蓮이 주장하는 국가주의는 明治 이후 부활, 그의 국가관은 국가지상주의적 호소력을 발휘하여 초국가주의<sup>40)</sup>자들에게 크게 영향을 미쳤다.

#### 1. 타나카 치가쿠(田中智学, 1861-1931)

37) 원영상(2010) 「한중일 삼국 근대불교의 민족의식에 대한 비교」, 동국대학교 불교문화연구원 編 『동아시아 불교의 근대적 변용』 동국대출판부, p.103.

38) 위의 책, p.102

39) 丸山照雄(1975. 11) 「超国家主義思想と日蓮主義」 『伝統と現代 総特集=宗教とは何か』 伝統と現代社, p.110

40) 일본에서는 파시즘을 초국가주의라든가 울트라 내셔널리즘으로 부르고 있다. 초국가주의의 ‘超’의 의미는 내셔널리즘의 극한 형태로서의 울트라 내셔널리즘의 특색 가운데 구할 수가 있다. 울트라 내셔널리즘은 전체주의적 원리를 내면적인 규범으로 하는 내외의 지배체제를, 바꿔 말하면 전체주의적인 국내에 있어서 파쇼체제와 대동아공영권과 같은 초국가적 세계지배체제를, 국내에 있어서 반혁명이나 대외침략전쟁을 매개로 하여 실현하는 것이야말로, 민족 혹은 국가의 발전을 확보하는 근거라고 확신하고 있는 설이다. (栄沢幸二<1981> 『日本のファシズム』 教育社, pp.212-213 참조)

침략주의적 발상의 대표자 타나카 치가쿠(田中智学)는 明治 이후 침략적 내셔널리즘 발양의 출발선상에 日蓮宗團을 침략적 제국주의와 합체시켰다. 日蓮宗 승려였던 타나카 치가쿠(田中智学)가 환속하여 재가불교 활동을 시작한 것은 1879년이다. 田中智学가 “日蓮主義運動”은 국체선양을 제1요건으로 해야 한다”는 신념을 품고, 1884년에는 ‘立正安国会’를 결성. 1995년 청일전쟁이 일어나자 ‘국도회(国祷会)’를 개최하여 오랜 과거(久遠)의 석가를 ‘아마테라스 오오미카미(天照大神)’ 즉 일본 황제로 간주하고, 그 일본 황제가 邪法이 횡행하는 청나라를 무찌를 것을 기도하였다.<sup>41)</sup>

田中智学는 근대 천황제를 日蓮宗 교리에 의해 의미를 부여하고, 일본국체의 불교적 의의를 국민에게 계몽하고자 동분서주했다. 타나카의 日蓮主義에는 정치이데올로기 색깔이 농후했으며, 일본에 의한 세계통일을 주창하는 등 극단적인 범일본주의적 정치문화 육성을 그 중심에 두었던 것이다.<sup>42)</sup> 그의 저술은 강한 국가주의, 국수주의를 바탕으로 한 日蓮主義를 유포시켰다. 1901년 『宗門の維新』을 저술하여 세계통일교로써 ‘大日本国教’를 제정하고, 日蓮을 대원수로 하고 『법화경』을 검으로 하여 사교(邪教)를 박살내는 침략적 折伏<sup>43)</sup>을 향하여 진군하자고 절규하였다.<sup>44)</sup>

1904년 러일전쟁에 즈음해서는, 타나카(田中智学)는 ‘국도회(国祷会)’를 주최하고, 『世界統一の天業』을 간행하여 출정군대에 기증하였다. 1910년에는 『日蓮聖人の教義』를 출판, 여기서도 王仏一体에 의한 世界統一 戒壇의 건립을 이상화시켰다.

놀랍게도 田中智学는 대륙에 대한 침략의식을 고취하기 위한 이데올로기적인 토대 가운데 중요한 하나를 제공 즉 ‘하트오이치우(八紘一字)’<sup>45)</sup>라는 간명한 침략목표를 집약한 상징어를 造語하였다. 1903년 『日本書紀』에 나오는 ‘兼六合以開都, 掩八紘而爲字’(六합을 겸해서 수도를 열고, 팔괘를 덮어 宇로 한다)의 문구를 빌어 그는 일본에 의한 세계통일의 원리로써 八紘一字를 造語했다. 2차대전 중 성전의 슬로건으로서 널리 선전된 八紘一字는 침략 목적인 ‘神国’·‘皇道’의 연장선에서 이를 더 구체적으로 침략 목표를 집약한 표어였다.

田中智学는 1차대전 해인 1914년에 ‘国柱會’를 설립, 그 후 1930년대까지

41) 田村芳朗(1972) 「近代日本の歩みと日蓮主義」 『日蓮と法華経』 春秋社, P.13, 田村芳朗·宮崎英修 編集

42) 松岡幹夫(2005) 『日蓮仏教の社会思想的展開』 東京大出版会, p.16

43) 日蓮은 다른 종교·종파의 가르침을 철저히 배격하고, 자신들의 교의체계를 무기로 상대방을 강력하게 제압하여 끌어들이는 日蓮宗 특유의 포교방법을 ‘折伏’이라고 한다.

44) 田村芳朗(1969) 『法華経』 中央公論社, p.154, 재인용

45) 八紘이란 전 세계, 따라서 八紘一字란 전 세계를 한 집으로 화합시킨다는 말이다. 속내는 땅 끝까지 하나의 집처럼 통일하여 일본 천황의 통치 하에 둔다는 뜻.

주요한 활동은 주로 군국주의적인 팽창정책을 종교적으로 지원하는 형태로 일본의 국위발양에 힘을 쏟았다. 그 때문에 타나카 치가쿠(田中智学)로 대표되는 근대 일본의 ‘日蓮主義=울트라 내셔널리즘’이라는 도식의 정착화는 어느덧 日蓮 본인이 국수주의적, 배타적, 전투적인 불교도라는 인상을 고착시켰다.<sup>46)</sup>

田中智学는 『법화경』 국가인 일본국을 이상으로 하여 그 이상을 실현할 수 있는 일본에 의해 ‘세계통일’을 목표로 한다는 것이었다. 그는 『법화경』의 진리인 ‘一念三千’의 법설과 일본 국체가 異名同体라고 해서 국체론적인 日蓮主義를 창시하고, 천황제 국가주의의 시류에 편승하여 천황주체의 세계통일국가 수립을 맹렬히 주창했던 것이다.<sup>47)</sup>

田中智学의 열렬한 선전활동은 각 방면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쳤으며, 특히 군인 혹은 정치가나 우익 투사에게도 영향을 끼쳐 파시즘을 고취했다. 그 결과 우익 쿠데타에 日蓮主義 내지는 법화사상을 응용하는 자가 나오기에 이르렀다.

## 2. 혼다 닛쇼오(本多日生, 1867-1931)

혼다 닛쇼(本多日生)는 日蓮宗系 顯本法華宗의 승려로서 日蓮宗 각 교단에 침략적 국책을 선동하는 종교적 지주 역할을 하였다. 혼다 닛쇼(本多日生)는 田中智学和 거의 같은 시기에 같은 日蓮主義에 기초하여 활동했다. 혼다(本多日生)는 日蓮의 여러 사원의 주지직에 취임하고, 1905년 이후는 20수 년 간에 걸쳐 顯本法華宗의 관장(管長)으로 근무했다. 재가활동가였던 ‘国柱会’의 田中智学和 더불어 顯本法華宗의 혼다(本多日生)의 영향을 받은 군국주의자들 가운데에는 실제로 日蓮主義에 바탕하여 자신의 국가주의적 가치관을 현실에 적용한 이들이 있었다. 많은 이들이 日蓮主義에 경도되어 군국주의 내지는 파시즘 국가체제에 복무하기도 하였고, 다방면에 걸쳐 이론적 지원을 하기도 하였다.<sup>48)</sup>

활동형태는 田中智学和 달랐지만, 국책의 침병으로서의 역할에서는 本多是 田中智学和 같은 위치에서 초국가적 日蓮主義 사상을 배경으로 파시스트들에게 크게 영향을 미쳤다. 田中가 ‘国柱会’를 중심으로 활동했다면, 本多是 ‘統一團’을 거점으로 하여 ‘統一團’을 중심으로 한 활동을 하였다. 혼다의 활동 가운데는 ‘立憲養生会’·‘明治会’·‘天業民報社’나 ‘天晴会’·‘自慶会’ 등 활동영역을 만들어갔다. 本多日生은 이러한 단체를 만들어 日蓮主義와 국가주의를 융합시키고, 국가의식을 고양시키는 다이쇼(大正)시기의 노동문제, 사회문제의 안정에

46) 앞의 책(松岡幹夫 『日蓮仏教の社会思想的展開』), p.16

47) 가타야마 모리히데 / 김석근 訳(2013) 『미완의 파시즘』 가람기획, pp.188-189

48) 앞의 논문(원영상<2010> 「일본 근대 군국주의 정책과 불교계의 수용」), p.106

참여하려고 한 것이다.<sup>49)</sup>

따라서 그의 주변에는 고명한 학자나 법조인들, 그리고 군인들이 모여들었다. 현상에 대해서 불만을 가진 사람들이 타나카(田中)나 혼다(本多)가 주장하는 日蓮主義에 의한 국체개현(開顯=열어보여줌), 일본주의의 확립, 현상의 변혁에 몸이 달아 그러한 이데올로기를 널리 전파시켜갔다.<sup>50)</sup>

### 3. 이노우에 닛쇼(井上日召, 1886-1967)

이노우에 닛쇼(井上日召)는 日蓮宗의 승려 출신으로 신앙과 신자들의 힘을 충분히 이용하여 파시즘 운동을 추진했다. 이노우에 닛쇼(井上日召)는 1905년 타쿠쇼쿠대학(拓植大学)에 입학 후 곧이어 만주에 건너갔다. 만주에 있는 동안 井上日召는 육군의 첩보근무에 종사하면서 대륙을 중횡무진 방랑하다 1922년 2월 귀국. 1925년 경 부터 여러 가지 신비적 체험을 거쳐 井上日召는 日蓮宗에 귀의했다. 그는 日蓮宗 승려로서 日蓮의 교리를 설법하고, 『법화경』의 수련을 통해 차츰 파시즘에 의한 ‘국가개조’와 결부시켜 혁신사상을 청년들에게 주입시켜 나갔다. 그해 ‘立正護国堂’을 건립하고, 신앙생활에 의해 국체관념의 고양을 도모하려고 하는 정신적 ‘국가개조’ 운동에 착수하였다. 그는 국가주의에 의한 농촌청년을 지도하던 중 해군중위 후지이 히토시(藤井齊)와 연결되어 점차 테러리즘에 의한 무력행사의 방향으로 기울어졌다. 그들 청년들이 이노우에를 맹주로 하는 무력투쟁에 의한 국가개조를 꿈꾸는 혈맹단(血盟団)을 결성, 이들 혈맹단은 정재계 요인 20명의 암살계획을 실행하였다.<sup>51)</sup> 여기에 참가한 해군엘리트 청년장교들이 1932년 ‘5·15사건’을 일으켜, 이때 일본의 국제고립화를 지양하고 국제협력노선에 의한 만주침략 불인정을 내걸었던 이누가이 쓰요시(犬養毅) 수상이 수상관저에서 암살되었다. 이 결과 일본의 정당내각 시대에 종지부를 찍고, 군부파시즘에로의 길을 열었다.

### 4. 기타 잇키(北一輝, 1883-1937)

기타 잇키(北一輝)는 日蓮宗의 근본 경전인 『법화경』의 독실한 신자로서 1920년 이래 독경(読經)을 일상적으로 실천해왔다. 기타 잇키(北一輝)뿐만 아니라 그를 추종하는 많은 유명무명의 파시스트가 日蓮主義者로서 일본의 대외팽창의 행로에 많은 영향을 끼쳤다. 1919년 그가 쓴 『日本改造大綱』은 일본군부에 지대한 영향을 끼친 파시즘의 경전이 되었다. 이후 일본파시즘의 교

49) 柏原祐泉 / 원영상 外 訳(2009) 『日本仏教史 近代』 동국대학교출판부, p.235

50) 渡辺宝陽(1972) 「近代日蓮主義の展開と国家主義」, 丸山照雄 編 『変革期の宗教』 伝統と現代社, p.161,

51) 万峰(1989) 『日本ファシズムの興亡』 六興出版, pp.162-163

조 키타(北一輝)는 전 생애를 과시즘 지도자로서 일관, ‘대외팽창주의’·‘만몽(滿蒙)침략주의’를 노골적으로 고취하였다.

1903년 8월 28일에서 30일에 걸쳐 『佐渡新聞』에 연재한 「政界廓清策과 普通選挙」라는 제목의 글에는 “일본제국의 장래와 4천 5백만 명의 자손의 장래를 위해 만한(滿韓)에 팽창하지 않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보다 2개월 앞서 게재한 「日本の将来と日露開戦」이란 글에서는 “만주, 조선, 그리고 시베리아의 동남부를 우리는 대륙에 있어서 발판으로 삼아 먼저 이것들을 복속시키지 않으면 안 된다.”<sup>52)</sup>

1923년 北一輝의 저서 『日本改造法案大綱』에서는 1936년 ‘2·26사건’의 이론적 지주로서 천황을 정점으로 한 쿠데타를 설하고, 일본을 아시아의 맹주로 하는 아시아 연맹의 형성을 논했다. 이것은 우익활동가나 청년장교에게 강한 공감을 불러왔고, 이윽고 北一輝는 그들 활동가와 皇道派 청년장교의 지도자로 자리하였다.

## 5. 이시하라 칸지(石原莞爾, 1889-1949)의 만주국 건국

이시하라 칸지(石原莞爾)는 日蓮主義에 기초를 두고 일본 중심적인 아시아 지배구상의 실현을 획책했던 日蓮宗徒였다. 이시하라 칸지(石原莞爾)는 1919년경부터 日蓮信仰에 입신, 田中智学가 창설한 ‘国柱会’의 멤버가 되었다.

田中智学의 전쟁론과 또 “말법의 세상에 一閻浮提(인간세계)에 前代未聞의 대투쟁이 일어나고, 그 결과 一天四海가 묘법에 들어가 『법화경』의 진리로 통일되리라(一天四海皆歸妙法)”고 하는 日蓮의 『撰時抄』의 구절에 암시를 받아 이시하라(石原莞爾)는 독자적으로 세계최종전쟁론을 구상하여 『最終戰爭論』을 저술하였다. 여기서 타나카(田中)가 예언한 “一天四海皆歸妙法은 48년 후에 도래한다”고 하는 대목을 일본이 세계적 전쟁에 참가해서 궁극적 승리를 거두는 해에 대한 예언으로 받아들였던 것이다.<sup>53)</sup>

石原莞爾는 1928년 이래 만주에 있었으며, 그 야심가의 임무는 만주탈취의 청사진을 일본천황에게 제출하는 것이었다. 石原莞爾 中佐(한국의 중령)는 만주가 일본에게도 또 아시아에 있어서도 가장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는 확신 아래 만주국 건설에 몰두하였다.<sup>54)</sup> 그는 만일 정부가 움직이지 않더라도, 관동군의 주동적 움직임에 의해 천하의 형세를 일변시키는 위업을 이룩할 수 있다고 하여, 관동군<sup>55)</sup>의 독단적인 음모에 의한 무력해결을 부르짖고 있었다.<sup>56)</sup>

52) 戸頃重基(1966) 『近代日本の宗教とナショナリズム』 富山房, p.204

53) 가타야마 모리히데 / 김석근 訳(2013) 『미완의 과시즘』 가람기획, pp.208-209

54) 仁科悟朗(1992. 9) 「幻の帝国満州国の終焉」 『満州国最期の日 <歴史読本>』 新人物往来社, p.41



石原莞爾은 1928년 10월, 관동군참모의 작전주임이 되었는데, 마침내 여기서 그 세계최종전쟁론의 구체화를 지향하고, 그 서전(緒戰)으로서 관동군 고급참모(大佐=한국의 대령) 이타가키 세에시로(板垣征四郎)·나가타 테쓰잔(永田鉄山) 등과 모의하여 1931년 9월 18일 ‘만주사변’을 일으켰으며, 이듬해 32년 3월 1일 괴뢰국·만주국을 건국시켰다. 만주사변의 결과물인 만주국 건국회의가 1932년 2월 16일 열린 날, 일본 국기도 청국 국기도 아닌 ‘난묘호 오렌케쿄(南無妙法蓮華經)’라고 적힌 통례의 문자가 깃발이 걸려 있었다. 이 회의가 열린 2월 16일이라는 날짜의 중요성… 2월 16일은 日蓮의 탄생일이라고 전해져 온 날짜이다. 石原莞爾은 만주국 건설이야말로 妙法蓮華經(법화경)의 가르침을 이 국토에서 실천하면 불국토를 건설할 수 있다고 확신하고 있었다. 이시하라(石原莞爾)는 日蓮에의 맹세와 불국토 건설에의 확신이 이 거대한 제목 7문자로 体现되어 높이 내걸려져 있었던 것이다.<sup>57)</sup> 이러한 관점에서 보면, 만주국 건설은 그러한 기념해야 할 ‘大折伏’의 제1보가 되는 셈이다. 따라서 그 제1보는 日蓮 탄생일이 되도록 조정되었던 것이다.<sup>58)</sup>

石原莞爾은 1939년 9월 ‘동아연맹협회’를 설립하고, 또 쇼오와(昭和)維新論을 주장하며 日中제휴에 의한 구체화를 논했다. 그것은 만주국을 발판으로 하고 소비에트, 러시아에게 대항하기 위한 것으로서 참 인류애적인 日中평화론에 기초한 것은 아니었고, 일본 중심의 침략적 구상에 있어서는 토오죠 히데키(東條英樹)와 같은 확대침략과와 다르지 않았다.<sup>59)</sup>

이시하라(石原莞爾)가 종교적 이상세계를 待望하며, 중국침략을 정당화해간 만주국 건설의 策源에는 ‘法華行者’ 日蓮이 있었다는 사실이다.

國家神道에 의한 군국 일본의 국체관이나 이데올로기의 근원이 있었음이 주지의 사실이다. 그러나 국체이데올로기에 근거해 천황에 대한 충성심을 강화시키고 침략전쟁에 국민을 동원하기 위한 국가신도 체제 외에, 체제화한 근대 日蓮主義라는 보조선을 그어야 한다.

## IV. 결론

55) 러일전쟁에서 획득한 남만주철도 및 요동반도 조차지(關東州)의 수비대였으나 그 후 70만 대군의 관동군으로 독립 편성되었다.

56) 小島晋治·丸山松幸 / 박원호 訳(1992) 『中国近現代史』 지식산업사, p.124

57) 入江辰雄(1984) 『日蓮聖人と石原莞爾』 たまいらぼ, p.209

58) 伊沢元彦(1998) 『逆説の日本史』 小学館, p.206

59) 戸頃重基(1972) 『近代社会と日蓮主義』 評論社, p.148

『立正安國論』에는 지향하고 추구하는 보편적, 이상적 국가에 대한 언급이 전혀 없다. 『법화경』을 근간하여 불교의 이상을 정치상에 구현하려 한 숭고한 뜻이 있었지만, 가장 격렬하게 공격을 가한 것은 막부 요인에 대해서가 아니고, 타종과 특히 念仏宗에 대해서 가해졌다는 사실은 논리적인 철저성을 결하고 있었다는 말이 된다. 이렇게 논리적 타당성을 결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의 국가론이 실제로 교리상으로 현실국가와 결합하고, 특정국가인 일본의 이해를 유일한 가치비판의 기준으로 삼았던 것이다.

일본 근대국가의 형성과정에 있어서 내셔널리즘의 發現 형태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결국 전체적으로, 근본적으로는, 일본제국의 발전방향을 정당화하는 의미를 갖고 전개되어 갔다. 이렇게 일본의 모든 종단이 근대 내셔널리즘의 말기적 一變種으로서의 초국가주의·제국주의와의 유착을 형성해왔던 것이다.<sup>60)</sup> 그러나 근대 내셔널리즘 발흥의 시대 日蓮宗團만은 결코 일본의 군국주의·제국주의 체제에 이끌려 간 체제순응적 종교가 아니었다. 근대 日蓮主義는 단지 체제와 권력이 요청하기 이전 초국가주의·제국주의를 견인해 가는 대외팽창의 이데올로기로 작용하였던 것이다.

근대 내셔널리즘에는 ‘국가주의’ ‘민족주의’가 함축되어 대외팽창에 동원되었는데, 日蓮主義가 근대 내셔널리즘에 지배되어 군국주의로 귀착하게 되는 길을 열게 한 것이 아니라, 원초적으로 日蓮의 국가사상 자체가 일본의 대외팽창 내셔널리즘의 元型·源流를 이루고 있다는 사실이다.

또 하나, 日蓮 고유의 특색과도 같은 ‘王仏冥合’이라는 교의가 그렇다. 왕불명합은 日蓮이 佛法과 王法(정치)의 일치를 말한 것으로, 이것 또한 전 세계인들이 『법화경』에 귀의하여 地上淨土(불국토)를 건설한다는 말이다. 이러한 황당무계한 교리체계가 전쟁을 통한 일본의 패권확립과 세계통일국가 추구라는 指南역할을 하도록 하는 이념적 토대가 되었다는 점이다.

日蓮 고유의 내셔널리즘은 근대 일본의 침략주의, 패권주의, 팽창주의, 군국주의, 식민지주의에 복선처럼 내재된 또 하나의 呪術이었다.

60) 奈古浦太郎(1969) 『日本の右翼』 三一書房, p.61

## 【참고문헌】

- 中村元 / 金知見 訳(1982) 『日本人의 思惟方法』 김영사  
金光植(1996) 『韓國近代仏敎史研究』 민족사  
——(1998) 『韓國近代仏敎의 現實認識』 민족사  
정광호(2001) 『일본침략시기의 한·일 불교 관계사』 아름다운 세상  
柏原祐泉 / 원영상 외 訳(2009) 『日本仏敎史 近代』 동국대학교출판부  
원영상(2010) 「한중일 삼국 근대불교의 민족의식에 대한 비교」·「일본 근대 군국주의 정책과 불교계의 수용」, 동국대학교 불교문화연구원 編 『동아시아불교의 근대적 변용』 동국대학교출판부  
若槻泰雄 / 김광식 訳(1996) 『일본 군국주의를 벗긴다』 화산문화  
姜渭祚(1977) 『日本統治下 韓國의 宗教와 政治』 대한기독교서회  
브라이언 다이젠 빅토리아 / 정혁현 訳(2009) 『전쟁과 禪』 인간사랑  
가타야마 모리히데 / 김석근 訳(2013) 『미완의 파시즘』 가람기획  
마쓰모토 겐이치 / 정선태·오석철 訳(2010) 『기타 잇키(北一輝)』 교양인  
小林英夫 / 임성모 訳(2004) 『만철(滿鐵)』, 산처럼  
末木文美士(1992) 『日本仏敎史』 新潮社  
村上重良(1981) 『日本の宗教』 岩波書店  
マックス・ウエーバー / 深沢宏 訳(2002) 『ヒンドウ教と仏敎』 東洋經濟  
戸頃重基(1966) 『日本近代の宗教とナショナリズム』 富山房  
——(1972) 『近代社会と日蓮主義』 評論社  
東京大学校仏敎青年会 編(1947) 『国家と仏敎』 日本青年教育会出版部  
中尾堯(1982) 『鎌倉仏敎の思想と文化』 吉川弘文館  
佐藤弘夫(1991) 『鎌倉仏敎』 第三文明社  
久保田正文(1967) 『日蓮』 講談社  
佐々木馨(2004) 『日蓮』 吉川弘文館  
末木文美士(2000) 『日蓮』 ちくま書房  
金岡秀友(1985) 『日蓮』 集英社  
丸山照雄 編(1981) 『近代日蓮論』 朝日新聞社  
松岡幹夫(2005) 『日蓮仏敎の社会思想的展開』 東京大学校出版会  
池田大作(1969) 『立正安国論講義』 創価学会  
菅野博史(2001) 『法華經入門』 岩波書店  
田村芳朗(1969) 『法華經』 中央公論社  
田村芳朗(1972) 「近代日本の歩みと日蓮主義」, 田村芳朗·宮崎秀修 編集 『日蓮と法華經』 春秋社  
田村圓澄(1964) 『日本仏敎思想史研究 <浄土教 篇>』 平楽寺書店

- 法然 / 大橋俊雄 校注(1997)『選択本願念仏集』岩波書店  
大橋俊雄(1978)『法然と浄土宗教団』教育社  
柳宗悦(1996)『南無阿弥陀仏』岩波書店  
萬峰(1989)『日本ファシズムの興亡』六興出版  
堀幸雄(1997)『戦前の国家主義運動史』三嶺書房  
栄沢幸二(1981)『日本のファシズム』教育社  
鈴木静夫・横山真佳 編著(1984)『神聖国家日本とアジア』勁草書房  
奈古浦太郎(1960)『日本の右翼』三一書房  
橋河文三(1978)「高山樗牛」『日本の思想家 <中>』朝日新聞社  
村上一郎(1974)『北一輝論』三一書房  
伊沢元彦(1998)『逆説の日本史』小学館  
渡辺宝陽(1972)「近代日蓮主義の展開と国家主義」, 丸山照雄 編 『変革期の宗教』  
伝統と現代社  
渡辺宝陽(1982年 4月)「立正安国論」・茂田井教亭「日蓮の国家観」『現代思想 特集  
=日蓮』青土社  
丸山照雄(1975年 11月)「近代日蓮主義と超国家主義」『伝統と現代 特集=宗教とは  
何か』伝統と現代社  
仁科悟朗(1992年 9月)「幻の帝国満州国の終焉」『満州国最期の日 =歴史読本』新  
人物往来社

## 要 旨

鎌倉新仏教は、ひたすら国家の安泰や権力者の安寧を禱る旧仏教とは違って、民衆の苦しみを救済するために出現した。日蓮宗が民衆救済を標榜する法然などの浄土宗との主な違いとその独自性は、この世もまた浄土になり得ること、そして現世における仏国土出現の可能性を重視したことである。日蓮は、こういう現世重視の仏教理念に基づいて『立正安国論』を書き上げたが、この論書を単なる鎮護国家思想とは断言できないのは、‘国家’や‘権力’に対する相対化の試みが宿っているからである。

日蓮は、現世の重視を説く教えである『法華経』を時代状況の中で独自に捉え直し、末法時代に苦しんでいる民衆を救える新仏教を打ち立てたのだ。特に、彼は天台宗出身にもかかわらず、天台智顛や最澄のように己の中の暗いものを見つめることを好まなかった。生の肯定の哲学、そして燃える生命の賛美の哲学を、日蓮は『法華経』信仰を軸に展開、時代宿命と言われた末法観を克服する理念的牽引力となった。また、日蓮が、日本の政治文化においてポジティブに作用する国家や政治に対する批判的な立場を日本史上初めて確立させたのは評価できる。

しかし、日蓮には、伝統の神道と融合した国家優越を呼びかけるナショナリストのイメージが定着している。こうして、近代日蓮教団の流れは、積極的に侵略のイデオロギーの一翼を担い、天皇制軍国主義へと傾いて行った。明治後半に起こり、大正、昭和の初期に一世を風靡した日蓮の教義は、日蓮門下各教団に国家主義的風潮を蔓延させた。

したがって、日蓮の国家思想には二面性がある、それは変化する時代状況の中で、その一面が所与の国家に対する抵抗の側面を示すが、もう一つの側面としては明治以後、体制化した日蓮主義が日本の対外膨張のイデオロギー的役割を果たす汎日本主義的な国家主義へと疾走させる側面がある。

国家・権力に対抗を試みた日蓮の新仏教が、民衆性から逸脱したのには、日蓮自身が中世国家や時代に安住する教理の欠陥、ひいては論理の不徹底性にもその根本原因があるのではないか。

キーワード：鎌倉新仏教 民衆宗教 法華経の再解釈  
 立正安国論 = 国家権力の相対化 現実浄土 ナショナリスト  
 天皇制軍国主義 侵略イデオロギー

투 고 일 : 2015. 2. 28  
 심 사 일 : 2015. 3. 14  
 게재확정일 : 2015. 4. 4